

IDP 정책연구 2014-02

진보의 길을 다시 묻다: 제3의 길 이후

이 진 복 |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민주정책연구원**





## 요 약

### ○ 제3의 길 이후 사회민주주의의 재혁신

- ‘제3의 길의 두 번째 물결’
  - ▶ 구좌파의 큰 정부와 신우파의 민영화를 넘어 ‘공공화 (publicisation)’를 통한 이데올로기적 돌파
- 새로운 시대의 중도진보 기획
  - ▶ 글로벌 금융위기의 신자유주의적 원인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심판으로 전도된 패러독스, 제3의 길을 모방한 보수정당의 중도화는 사회민주주의의 근본적 자기 혁신을 요구
  - ▶ 보수정당의 중도화에 대항해 유럽 사회민주정당은 중도를 고수하면서 사회정의와 경제적 효율성의 병행발전, 평등과 자유의 선순환을 재발견하는 이데올로기 혁신을 추진
- 신중도와 새로운 진보연합
  - ▶ 무당파 유권자의 정서와 가치를 이해하고 희망과 낙관주의를 통해 신중도를 장악하여 새로운 진보연합 구축

---

○ 제3의 길 이후 정책의 재혁신

– 경제정책의 혁신방향

- ▶ 성장과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 새로운 지속가능한 모델을 기안하는, 구좌파의 케인즈주의와 신우파의 신고전 경제학을 넘어서는 혁신경제를 정립해야

– 복지정책의 혁신방향

- ▶ 복지국가를 안전망(safety net)과 함께 상향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약대(springboard)로써 기능하는 ‘기회국가 (opportunity state)’로 재구성해야

○ 오바마의 ‘담대한 중도’

-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은 유럽 사회민주주의 혁신의 벤치마킹 모델
-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은 ‘담대한 중도’. 오바마의 승리는 중도를 장악하는 것이 새로운 진보이자 집권공식이라는 것을 다시 증명
- 오바마가 ‘혁신적 온건론자’ 또는 ‘비전있는 중도주의자’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의 불신만 증폭해왔던 증오의 정치 속에서 고정관념을 벗어던진 문제해결의 정치,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천함으로써 ‘혁신적’이고 ‘비전있는’ 정치인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

---

○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방향

-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대한 중도’를 찾아야. 진영논리에 안주하는 ‘시끄러운 소수’의 존재감의 정치가 아니라 문제해결의 정치를 열망하는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정서와 이해를 대변하는 공감의 정치를 일관되게 실천해야
- 여론조사로 말하는 조용한 다수의 상식에 근거한, 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신뢰, 통합, 희망의 정치가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방향

① ‘문제는 신뢰야, 바보야!(It's trust, stupid!)’

- 정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화는 정치적 말장난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임. 신뢰가 지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차별화를 명분으로 극단화되는 아웃파이터가 아니라 인파이터가 되어 중도 싸움에서 승리, 수권정당이 되어야

② ‘박근혜는 생각하지마(Don't think of Park).’

- 민주당은 박근혜가 무엇을 하든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는 ‘국민제일의 정치’를 일관되게 실천해야. 이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민생제일의 초당적 정치’를 전제

③ ‘희망이 분노를 이긴다(Hope beats anger).’

- 수권정당은 문제를 지적하는 분석가, 분노하는 항의운동이 아니라 해법을 제시하는 실천가, 희망을 실천하는 대안 정당임. 새정치민주연합은 양극화의 진단이 아니라 계층상승의 해법을 제시하는 희망의 정당이 되어야



## ●● 목 차 ●●

• 요약 .....	3
1. 서 : 새로운 진보 .....	9
2. 제3의 길 이후 사회민주주의의 재혁신 .....	14
(1) ‘제3의 길의 두 번째 물결’ .....	14
(2) 새로운 시대의 중도진보 기획 .....	18
(3) 신중도와 새로운 진보연합 .....	30
3. 제3의 길 이후 정책의 재혁신 .....	36
(1) 경제정책의 혁신 방향 .....	36
(2) 복지정책의 혁신 방향 .....	39
4. 결 : 담대한 중도 .....	43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진보의 길을 다시 묻다 : 제3의 길 이후

이 진 복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 1. 서 : 새로운 진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최종 사형선고처럼 보였다. 신자유주의의 한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진보의 시대가 열릴 것처럼 보였다. 나아가 ‘점령하라 운동(Occupy movement)’의 세계적 반향으로 새로운 운동의 정치가 폭발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대불황(Great Recession)을 야기한 금융위기는 사회민주주의를 정치적으로 심판했다. 위기 이후 유럽 사회민주정당들은 26번의 선거에서 20번을 졌다. 더욱이 주요 사회 민주당의 패배는 기록적인 참패였다. 2009년 독일 사회민주당, 2010년 영국 노동당은 창당이후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의 사회당 또한 대참패를 당했다. 2013년 독일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은 또 다시 패배했다. 현재 유럽연합 27개국에서 프랑스와 덴마크 등 6개국을 제외하고 모두 중도보수정당이 집권하고 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만년 사회민주당 집권국가들이었던 스칸디나비아

---

국가들에서도 모두 중도보수정당이 집권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권에 성공한 덴마크 사회민주당조차 20세기 최악의 득표율을 기록했다<sup>1)</sup>.

승리하고 있는 최근의 중도보수정당들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냉혹한 신우파적 수사를 버리고 립서비스일지라도 ‘온정적 보수주의(Compassionate Conservatism)’를 내세우고 있다. W. 부시는 2000년 대선에서 제3의 길을 모방하여 온정적 보수주의를 처음으로 사용, 이길 수 없었던 대선에서 승리했다<sup>2)</sup>. 미국 민주당의 제3의 길이 유럽 중도진보정당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었듯이, 미국 공화당의 온정적 보수주의는 유럽 중도보수정당의 이데올로기 혁신의 동력이 되었다. 영국 보수당의 카메론(David Cameron)은 ‘블레어의 후계자(the heir to Blair)’임을 자처하면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실용을 중시하는 ‘현대적인 온정적 보수주의자’임을 공언했다. “보수당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정당이고 현재의 상황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변화의

---

1) Liam Byrne, *The New Centre-Ground: How can Progressives Win a New Majority?* Progress, Centre for American Progress, (2012,4), pp.28-30, 2012년 5월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당 올랑드(Francois Hollande)의 승리 또한 유럽 사회민주당들의 암울한 흐름을 바꿀 수 없었다. 올랑드 정부의 지지율은 최악이다. “유럽 사회민주주의는 성공적인 통치를 위해 필요한 진지하고 심층적인 혁신을 아직 완수하지 못했다. 물론 어부지리로 진보정당은 승리할 수 있지만 집권 후 무엇을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거의 없다. 방향성이 없다면 진보정당은 몸부림치다가 몇년만에 파국적인 패배를 당할 위험이 있다.” Olaf Cramme, Patrick Diamond & Michael McTernan, "Mayday for the European Left", *The New Statesman*(2012,4,17).

2) Anthony Giddens, (ed) *The Global Third Way Debate*, Polity(2001.), p.20. W. 부시는 ‘온정적 보수주의’를 내세워 유권자를 기만하는데 성공했다. “어려운 시민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온정적이다. 책임과 결과를 중시하는 것은 보수적이다. 희망과 낙관주의의 이 접근방식은 국민의 생활에서 진정한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부시는 클린턴의 신민주당(New Democrat)을 차용한 신공화당(New Republican)을 자임하면서 놀랍게도 “정부가 해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문제다”라는 레이건의 신자유주의적 공식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부시는 적극적 정부에 대한 제3의 길 화법을 그대로 사용한다. “큰 정부냐 무관심한 정부냐는 낡은 논쟁을 거부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효율적이고, 가까워야 한다.” “우리는 약육강식 사회(sink-or-swim society)를 믿지 않는다. 우리는 자치를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 정부를 활용하고 있다.” The White House, "Fact Sheet: Compassionate Conservatism" (2002,4,30).

<http://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2/04/20020430.html>

---

정당이기 때문에 당은 현대화되어야 한다. 보수주의는 뒤쳐진 사람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온정적이다. 보수주의자는 국민을 신뢰하고 국민에게 더 많은 권력과 책임을 주고 따라서 더 강력한 사회를 믿기 때문이다.” 온정적 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수정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회의주의를 활용하여 이를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결합하는 이데올로기 혁신을 추진했다. 그 목적은 “국가통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진보의 지도력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 보수주의자가 ‘진보적 비전’을 운운하면서 형용모순적인 ‘진보적 보수주의(progressive conservatism)’를 천명한다<sup>3)</sup>. 진보적 보수주의는 분명한 전략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 이슈에서 우위를 확립하는 것이다. 중도보수정당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의 실패로 재규정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사회민주정당을 경제위기의 후과를 관리할 수 없는 무능한 정당으로 낙인찍었다. 신뢰받는 경제 관리자가 되지 못한다면 유력한 집권 경쟁자가 될 수 없다. 이는 정치적 중도를 재규정하는 것이다. 유럽에서 중도보수정당은 유능/무능과 실용/극단의 구도에 입각해 사회민주정당을 무능하고 극단적인 정당으로 낙인찍고, 스스로를

---

3) Andrew Rawnsley, "The David Cameron Interview: I'm not a Deeply Ideological Person, I'm a Practical One," The Observer(2005.12.18). 카메론은 ‘진보적 보수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진보적 보수주의의 ‘진보’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목적을 대변한다. 좋은 사회와 좋은 삶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다. 보수적 수단이 이 공유된 진보적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진보적 보수주의의 ‘보수’가 정부에서 이 정치철학을 실천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적합한 이유이다. 진보적 목적은 보수적 수단을 통해 실현된다.” 카메론은 제3의 길을 받아들이면서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공약했다. 사회민주주의와 공유하는 보편적 목적, 즉 공정사회, 기회사회, 녹색사회, 안전사회를 보수당이 추구해야 하는 ‘진보적 비전’으로 설정하고, 책임과 권력의 분권, 가족과 사회의 강화, 신경제의 구축, 재정건전성을 ‘보수적 수단’으로 규정한다. David Cameron, "Making Progressive Conservatism a Reality" (2009.1.22). [http://www.demos.co.uk/files/File/David\\_Cameron\\_Making\\_progressive\\_conservatism\\_a\\_reality.pdf](http://www.demos.co.uk/files/File/David_Cameron_Making_progressive_conservatism_a_reality.pdf)

---

유능하고 실용적인 온건 정당으로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중도를 장악, 선거에서 승리하고 있다.

‘진보적 보수주의’는 우파의 전통적 지지자와 중도의 새로운 지지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지지의 정치’와 ‘권력의 정치’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통치 능력과 실용을 중시함으로써 중도부동층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제 유럽의 보수정당은 1980년대의 냉혹한 신우파정당이 아니라 ’50년대의 기독교 민주주의와 일국민 보수주의(One Nation Conservatism)의 온건 보수주의 전통을 부분적으로 복원함으로써 ‘따뜻한’ 중도보수정당이 되어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sup>4)</sup>. 우리나라 또한 예외일 수 없다. 2012년 대선에서 ‘따뜻한 육영수’와 ‘유능한 박정희’의 이미지를 동시에 어필하는 ‘100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들 ‘준비된 여성대통령’으로 분장한 박근혜 후보의 ‘중도화’ 전략도 세계 보수정당의 중도화 흐름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럽에서 사회민주정당들의 연이은 패배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이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신자유주의적 원인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심판으로 전도된 패러독스, 제3의 길을

---

4) Patrick Diamond, "The New 'Progressive' Conservatism in Europe", Policy Network(2011.4.13). '진보적 보수주의'는 독일의 기민련, 스페인의 국민당, 스웨덴의 온건당 등, 승리하고 있는 유럽 중도보수정당의 슬로건이 되었다. 독일 메르켈(Angela Merkel) 수상은 2000년 당수가 된 직후부터 '중도의 위대한 국민정당(a great people's party of the middle)'을 자임하면서 '새로운 신중도(the new new middle)'를 선언했다. "우리는 우리사회의 중도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유일한 정당이다," David Hudson, "The New New Middle", Spiegel(2000.4.5), Ian Traynor, "Merkel Persuades Germans", The Guardian(2009.9.27), Carlos Mulas-Grandos & Carmen de Paz, "Rajoy's 'New' Conservative Framing", Policy Network(2012.5.16), Olaf Cramme and Patrick Diamond, "Why the Right Won yet again", The Guardian(2011.6.5), Patrick Diamond, "Europe's New Conservative Agenda(s)", ESharp(2011.4.22), Katrine Kielos, "Not the Same Old Sweden", Policy Network(2010.9.24), David Cameron, "Labour are now the Reactionaries, We the Radicals", The Guardian(2010.4.8).

모방한 보수정당의 중도화는 제3의 길 이후 또다른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은 무엇보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을 전제한다. 전세계 중도진보주의자는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다. 유럽 차원의 ‘암스테르담 프로세스(The Amsterdam Process)<sup>5)</sup>’와 세계 차원의 ‘글로벌 진보(Global Progress)<sup>6)</sup>’가 대표적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보의 길을 다시 묻고, 새로운 진보의 길을 찾는 과정이다. 아직 혁신은 완수되지 않았지만 문제의식과 혁신방향은 분명한 것 같다.

본 연구는 《진보의 길을 다시 묻다: ‘제3의 길’》의 후속작으로 제3의 길 이후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또한 세계 진보담론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것이기도 하다. 2장에서는 먼저 제3의 길의 학술적 집대성자인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제3의 길의 두 번째 물결’을 정리하고 이어 암스테르담 프로세스의 ‘새로운 시대의 중도진보 기획’, 영국 노동당의 ‘정책재검토(Policy Review)’와 글로벌 진보의 ‘신중도와 새로운 진보연합’의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3장은 제3의 길 이후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재혁신 방향을

5) ‘암스테르담 프로세스’는 2010년 조직되어 유럽에서 제3의 길 이후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방향을 기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찰과 전략적 사고의 혁신 프로그램이다. 유럽 싱크탱크 네트워크인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와 네덜란드 사회민주당 싱크탱크 비아르디 베크만 재단(Wiard Beckman Stichting)이 주도하고, 유럽진보연구재단(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의 ‘다음 좌파(Next Left)’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유럽의 저명한 학자, 정책입안가, 정치지도자, 사상가가 참여하고 있다. Olaf Cramme, et al. *A Centre-Left Project for New Times*, Policy Network (2012.4.16), p.3. Olaf Cramme & Rene Cuperus, "The Amsterdam Process: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Queries*(2011.2).

6) ‘글로벌 진보’는 2008년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와 스페인 사회당 싱크탱크, 아이디어 재단(Fundacion IDEAS)이 조직하고, 정책네트워크, 유럽진보연구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 등 전세계 진보연구소와 파트너십 하에 진보 정치인, 사상가, 전략가, 정책입안가가 참여하는 진보의 세계적 혁신 프로그램이다.

"Global Progress" [http://www.fundacionideas.es/sites/default/files/Resumen\\_Global\\_Progress\\_ingles.pdf](http://www.fundacionideas.es/sites/default/files/Resumen_Global_Progress_ingles.pdf)

---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일한 의미있는 진보의 승리이자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는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 즉 ‘담대한 중도’를 소개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은 진보를 다시 생각할 것을 전제한다. 진보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진보를 찾을 것을 촉구한다. 지는 것에 익숙해져, 위기감마저 상실한 것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자문하고 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을 위해 어디로 가야하는가? 퀴바디스(Quo Vadis) 새정치민주연합? 패배의 질곡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혁신 논의를 소개하는 이 글이 하나의 나침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2. 제3의 길 이후 사회민주주의의 재혁신

### (1) ‘제3의 길의 두 번째 물결’

사회민주주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끊임없이 진보의 길을 다시 묻는 수정주의 전통을 내장하고 있다.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의 수정주의 전통을 계승해 영구적 자기 혁신, 영구 수정주의를 명시적인 진보의 본령으로 선언했다. 제3의 길에 대한 자기성찰은 이미 2003년 기든스의 《진보 선언 The Progressive Manifesto》에서 이뤄지고 있다. 2000년 미국 민주당의 고어(Al Gore)가 ‘온정적 보수주의’를 내건 W. 부시에게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유럽에서 주요 사회민주당들이 연이어 패배했다. 기든스는 일련의 패배의 원인을

---

기본적으로 “제3의 길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제3의 길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진단한다. “제3의 길로 충분하게 이동하지 않았던 정부 또는 정당은 권력을 상실하거나 집권할 수 없었다.”

기든스는 “제3의 길의 많은 핵심 아이디어가 타당하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에 대응해 새로운 해법을 기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3의 길이 전통적인 좌파주의(leftism) 고정관념에 도전한 것은 옳았다는 것이다. 기든스는 제3의 길의 타당성 목록들을 열거한다. 중산층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보통사람의 꿈, 성공에 대한 열망을 포용한 제3의 길은 선거에서 승리했다. 제3의 길이 구좌파의 높은 세금과 과도한 지출이라는 관성적 정책을 거부한 것은 옳았다. 제3의 길이 복지급여가 아니라 일자리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복지개혁을 주장한 것은 옳았다. 고용율을 정책의 제1목표로 삼은 것은 옳았다. 고용율이 높은 사회는 지속적인 공공투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이를 통해 경제발전과 사회정의가 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옳았다. 이는 권리를 책임과 연계하는 새로운 시민권 계약을 전제하고, 제3의 길이 ‘책임 없이 권리 없다’고 주장한 것은 옳았다.

그러나 기든스는 제3의 길이 또다른 교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제3의 길 토론은 지속적인 진화적 논쟁”, 즉 영구 수정주의이기 때문이다. “정치사상과 정책형성의 현재의 상황에서 제3의 길 사상이 지금까지 성취한 것을 넘어서 가야 한다.” 여기에는 두

---

가지 이유가 있다. “주요한 이유는 현재의 모습을 가진 제3의 길이 시작된 시기인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이후 세계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제3의 길 아이디어에 어떤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제3의 길이 시작된 맥락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결점은 지금 수정되어야 한다<sup>7)</sup>.”

제3의 길은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우파에 대한 비판으로 개발되었다. 제3의 길은 무엇을 할 것인지가 아니라 무엇에 반대하는지에 너무 많이 규정되었다. 사회민주주의자는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성취한 것보다 더 큰 이데올로기적 돌파(ideological breakout)가 필요하다. 이 이데올로기적 돌파는 새로운 컨셉과 새로운 정책 전망을 요구한다. 우리는 계속 혁신적(radically)으로 사고해야 한다. 그러나 혁신주의(radicalism)는 과거의 전통적 좌파주의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참신한 아이디어들(fresh ideas)에 개방적인 것을 의미한다<sup>8)</sup>.

기든스는 이 ‘이데올로기적 돌파’를 기존의 ‘제3의 길의 첫 번째 물결(the first wave of third way)’과 대비하여 ‘제3의 길의 두 번째 물결(the second wave of third way)’, 나아가 ‘제3의 길’을 넘어서 ‘제4의 길(the fourth way)’로 부르고 싶다면 ‘새로운 진보주의(neoprogressivism)’, ‘새로운 진보주의자(neoprogressives)’로 지칭한다. 이는 제3의 길이란 명칭이 보수와 진보 사이의 제3의 길로 오해되어 왔던 함의를 벗어나 제3의 길의 중도가 진보임을 확실히

---

7) Antony Giddens(ed), *The Progressive Manifesto*, Polity(2003), pp.1-5. Matthew Browne, et al.(ed), *Progressive Futures*, Policy Network(2003).

8) Antony Giddens(2003), p.6. 강조는 기든스.



---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하면 진보는 좌경화, 우경화가 아니라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수용해 현실을 반영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진보는 중도라는 것이다.

새로운 진보주의는 무엇에 반대하는지가 아니라 “야심차고 종합적인 사회민주주의 어젠다”가 되어야 한다. 실용주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돌파를 통해 제3의 길의 첫 번째 물결보다 더 심층적인 지지를 창출해야 한다. “심층적 지지는 단지 실용적 이해 관계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정서적 심금을 울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전에 진보가 훨씬 더 많이 가졌던 능력, 즉 영감을 주는 능력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창조하기를 원하는 사회의 유형, 세계의 형식에 대한 컨셉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거티브가 아니라 ‘좋은 사회(good society)’에 대한 새로운 컨셉과 정책 전망을 포지티브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sup>9)</sup>. “좋은 사회는 시민이 자신의 열망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보호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회이다.” 제3의 길의 첫 번째 물결은 개인의 성공에 대한 열망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보호와 안전을 등한시했다. 제3의 길의 두 번째 물결은 공익과 공공재에 대한 혁신을 중시해야 한다. “건강한

---

9) 블레어-슈뢰더 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영국 노동당 싱크탱크 '나침반(Compass)'은 제3의 길의 변형적 변화를 위한 지속적 연합을 구축하는데 실패했다고 진단하면서 민주적 진보의 대안적 프로젝트로 '좋은 사회'를 제안한다. '좋은 사회의 정치'는 민주주의, 공동체, 다원주의에 기초한 '사회적 유럽의 정치(a politics for a social Europe)'이다. “유럽은 사회적 생산성(social productivity)의 개념에 근거한 리스본협약 이후의 전략(post-Lisbon Strategy)이 필요하다. 사회적 생산성은 사회적 성장이다. 사회적 성장은 사회적 가치와 노동의 질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의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고 소비의 지속가능한 패턴을 개발한다. 시민의 행복과 일반적 삶의 질은 단순한 수학적, 화폐적 가치 이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Henning Meyer & Jonathan Rutherford(ed), *The Future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Building the Good Society*, Palgrave Macmillan(2012).

---

경제는 잘 작동하는 시장이 필요하고, 또한 정부가 본질적 역할을 하는 잘 발전된 공공영역이 필요하다.”

기든스는 이데올로기적 돌파를 위한 제3의 길의 두 번째 물결이 ‘공공화(publicisation)’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공공영역의 강화가 구좌파의 유모국가(nanny state)로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전후 구좌파의 큰 정부의 시대와 함께 신우파의 민영화의 시대를 넘어 ‘공공화의 시대’를 주창해야 한다. “공공화는 좋은 사회를 위한 공공영역의 핵심적 중요성을 방어하는 것이다.” 기든스는 공공화의 사회를 “변영하는 시장경제와 결합된 강력한 공공영역, 다원주의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국제법의 원칙에 근거한 세계시민적 세계(cosmopolitan wider world)”로 제시한다<sup>10)</sup>.

## (2) 새로운 시대의 중도진보 기획

최근 유럽에서 사회민주정당들의 연이은 패배는 사회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이어졌다. 사회민주주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암스테르담 프로세스는 두 가지 자기반성에 입각해있다. 첫째,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는 ‘회피의 정치(the politics of evasion)<sup>11)</sup>

---

10) Antony Giddens(2003), pp.6-7.

11) 정책네트워크는 사회민주주의를 혁신하는 유일한 길은 ‘회피의 정치’라는 자기위안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회피의 정치’는 원래 미국 민주당 현대화론자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거부하는 구좌파의 고정관념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했다. “회피의 정치의 중심목적은 의미있는 변화를 회피하고, 정당이 여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어쨌든 부도덕하다고 확신했고 다수당 내의 소수파가 되기보다 소수당 내의 다수파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했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연속 패배한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잘못된 데이터와 자료에 근거해 현실이 아니라 희망사항을, 분석이 아니라 신화를 제시했다.” William Galston and Elaine Kamarck, *The Politics of Evasion and the Presidency*, Progressive Policy Institute(1989).

---

라고 부를 수 있는 고정관념에 빠져있다. 사회민주당이 신뢰를 상실한 근본 원인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 위기에 대한 분명한 해법을 기안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는 점차 편협해지고 있다. 진보를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공 지출의 양으로 착각하고 있다. 자유와 안전을 동시에 요구하는 유권자의 명백히 모순적인 성향을 무시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암스테르담 프로세스는 유럽의 사회민주당이 직면한 위기가 단순히 ‘선거의 위기’만이 아니라 ‘통치의 위기’라고 진단한다. 사회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집권 청사진을 유권자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새로운 선거연합을 구축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경제위기의 시기에 ‘항의의 정당’과 연합하려는 유혹을 받지만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sup>12)</sup>.

이와 관련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정치적 함의를 분석한다. 핵심적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경제위기의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주의가 정치적으로 심판받고 있는 현실이다. 남 탓하지 않고 이 현실을 자기성찰 할 때만 사회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을 해명할 수 있다. 미국 민주당이 1930년대의 대공황을 정치적 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유럽의 사회민주당들은 왜 현재의 대불황을 정치적

---

12) Olaf Cramme, "Preface", in Olaf Cramme(ed), *Priorities for a New Political Economy: Memos to the Left*, (Policy Network, 2011).

---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 현재의 경제위기가 왜 사회민주주의의 위기로 전도되고 있는가?

경제위기가 국가부채의 위기로 재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의 중심적 이슈가 신자유주의의 내재적 불안정성이 아니라 정부의 문제, 즉 정부의 크기, 역할, 효율성의 문제로 여겨졌다.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을 해야 하고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보수정당의 주장은 개혁적으로 보였으며, 보통사람의 생활체험과 일치했다. 반면 엄청난 국가부채의 와중에 수요창출을 위해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사회민주당의 케인즈주의 전략은 현상 유지적이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하나라도 절약하려고 애쓰는 생활인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근본적으로 왜 더 많이 빚을 지는 것이 민간과 공공의 부채에 대한 더 좋은 장기적 해법이 될 수 있는가?” 사회민주당은 이에 대해 단순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결국 사회민주당은 나라를 경영하려는 책임 있는 정당이 아니라는, 특히 경제와 관련하여 정직하지 못한 정당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sup>13)</sup>.

사회민주주의의 위기와 관련해 암스테르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내린다.

---

13) Olaf Cramme, Patrick Diamond & Michael McTernan, "Introduction, Governing from the Left," in Olaf Cramme, et. al. *Progressive Politics after the Crash*, (Policy Network, 2013), pp.5-7.

---

문제의 근원은 사회민주주의가 경제위기에 대한 분명한 해법을 제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민주당과 그 통치이념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이 위기가 유럽 사회민주주의에 드러낸 이데올로기적 공백이다. 이 공백은 전술적인 위치설정의 변화, 리더십의 문제, 또는 어떤 단기적 수정으로 채워질 수 없다. 필요한 것은 제3의 길과 같은 최근의 수정주의적 프로젝트의 실수와 동시에 전통주의적 관성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수정주의를 창안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혁신이다<sup>14)</sup>.

새로운 이데올로기 혁신을 위해서 전통주의적 관성과 함께 제3의 길의 실수를 수정해야 한다. “현대화론자와 전통주의자 모두 중도진보 정치의 근본적 재검토에 저항했다.” 제3의 길과 전통주의적 관성 모두를 넘어서는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수정주의, 제4차 수정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sup>15)</sup>. 무엇보다 제3의 길이 가진 피상성은 사회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적 공백을 초래했다. 제3의 길은 “넓은 강령적 공약과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버렸지만 일관된 지도적 목적을 잃어버렸다.” 제3의 길이 “사회민주당의 지속적인 가치인 궁극적 목적의 수정과 혁신이 아니라 정책의 재형성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변화된 현실에 정책을 적응시키는 실용주의를 넘어 궁극적 목적의

---

14) Policy Network and Wiardi Beckman Stichting, "The Amsterdam Process: The Ideological Renewal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p.2, (2010).  
[http://www.policy-network.net/uploadedFiles/Publications/Publications/The%20Amsterdam%20Process%20\(6\).pdf](http://www.policy-network.net/uploadedFiles/Publications/Publications/The%20Amsterdam%20Process%20(6).pdf)

15) 사회민주주의의 1차 수정주의는 19세기말 의회민주주의를 통한 개혁을 주장한 베른슈타인의 진화적 사회주의이다. 2차 수정주의는 1950년대 윤리적 실용주의에 기초한 사상의 자유정당, 국민정당을 공식화한 독일 사회민주당의 바트고데스베르크 강령에서 정식화되었다. 3차 수정주의는 1990년대 영구 수정주의를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구좌파와 신우파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타파하는 혁신 중도(radical center)를 자임한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 독일 사회민주당의 신중도에서 가장 강력하게 표현되었다. 이진복, 《진보의 길을 다시 묻다: '제3의 길'》 민주정책연구원, IDP 정책연구 2014-01.

---

수정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주의적 관성을 버리는 것을 전제한다. 무엇보다 향수의 정치(the politics of nostalgia)와 절망의 정치(the politics of despair)를 거부해야 한다. 전후 ‘사회민주주의의 황금시대’에 대한 향수에 근거해 구좌파는 제3의 길이 신자유주의에 굴복했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이는 과거에 사회민주주의가 유럽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는 착각에 기초해 있다. 노르딕 국가들을 제외하고 전후 서구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지배적인 정당은 기독교민주주의 중도보수정당이었다. 이런 착각은 신자유주의의 힘을 과장하고 시장을 인정하는 모든 이데올로기를 신자유주의로 적대하는 절망에서 비롯된다<sup>16)</sup>. 향수와 절망에 근거한 정치의 근본적 결함은 미래의 도전을 회피하면서 과거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보수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다시 사회민주주의는 그릇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데올로기 혁신을 추진하는 영구 수정주의가 되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는 다시 미래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가 근본적인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려면 과거에 간직해왔던 많은 가정과 믿음을 수정하고 필요하면 해체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의 정치 전략을 신뢰할 수 있는 통치 방식과 연결하는 일관성 있는 지도적 목적을 정교화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수정주의를 위한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sup>17)</sup>.

---

16) Olaf Cramme & Patrick Diamond(eds), *After the Third Way: The Future of Social Democracy in Europe*, I. B. Taurus(2012), pp.1-3.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맹위를 떨쳤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신자유주의의 몇몇 핵심적 가정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가령, 복지는 체계적으로 해체되지 않았다. 유럽에서 신자유주의의 전 형이었던 영국조차도 1997년 보수당이 권력을 상실했을 때, 국민소득 대비 복지지출이 보수당이 처음 집권했던 1979년보다 더 높았다.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선진경제국가들 전체에서 국민소득 대비 복지지출은 6%이상 증가했다. Olaf Cramme & Patrick Diamond(2012), pp.10-11.

---

첫째, 현대적 사회민주주의는 중도를 고수해야 한다. 유럽에서 좌우의 전통적 대치선은 지속적으로 해체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중도화에 대항해 차별화를 명분으로 좌경화하는 것은 선거에서 패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의 전략적 목적은 정치의 중도를 진보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양극화된 좌우의 선택지가 아니라 경제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에 근거해 투표한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이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사회민주정당은 법과 질서, 이민, 안보 등과 같이 전통적으로 우파가 소유해왔던 이슈에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우파의 이슈를 무력화시키지 않고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둘째, 사회민주주의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구좌파는 경제위기가 큰 정부를 정당화할 것으로 착각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모순된 요구를 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한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강력한 정부를 원하지만 다른 한편, 선택과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세계화 속에서 중앙정부의 능력에 회의적이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사회민주정당은 신우파의 ‘작은 정부’와 구좌파의 ‘큰 정부’라는 잘못된 양자택일에 대항하여 정부를 다시 혁신해야 한다.

셋째, 도덕적, 사회적 해체에 대한 불안을 이해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가족해체, 아동의 상업적 이용, 신앙과 공공영역의 관계, 새로운 정체성의 출현 등을 걱정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래에

---

17) Olaf Cramme, Patrick Diamond & Roger Liddle, *Challenging the Politics of Evasion*, (Policy Network, 2009.12), Patrick Diamond & Roger Liddle, *Beyond New Labour: The Future of Social Democracy in Britain*, Politico's(2009).

---

대한 회의가 이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경제만이 아니라 정체성도 오늘날 정치적 논쟁의 주요 이슈이다. 따라서 사회민주당은 시민권에 대한 전통적인 이야기를 다시 찾아야 한다. 권리와 함께 책임을 강조하는 좋은 시민과 덕성의 정치(the politics of virtue)를 말해야 한다.

넷째, 재분배와 공정성의 정치를 둘러싼 혼란에 대응해야 한다. 사회민주당은 분배정의의 목적이 공정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사회민주주의가 옹호하는 국가주도 분배가 시장이 창출한 분배보다 훨씬 더 자의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유권자는 대규모 정부 관료제와 프로그램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노력, 기회, 호혜성을 강조하는 ‘공정성 코드(fairness code)’를 복원해야 한다.

지난 2년간의 암스테르담 프로세스를 정리한 혁신 매뉴얼, 〈새로운 시대의 중도진보 기획 A Center-Left Project for New Times〉은 사회민주주의가 ‘신뢰성의 덫(credibility trap)’과 ‘공약실현의 결핍(delivery deficit)’에 빠져있다고 진단한다. “사회민주주의의 정치, 사회, 경제의 핵심 공약이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핵심적 딜레마는 진보가 유권자에게 너무나 많은 약속을 하고 있지만 많은 유권자들은 중도진보정당이 그 약속을 실현할 능력이 있다고 더 이상 확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진보의 딜레마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의 딜레마이다.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은 실현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비현실적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높아진 기대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다시 정치에 대한 환멸이 증폭되고 있다. “정



---

치의 위기는 진보에게 가장 큰 타격을 가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언제나 대의민주주의와 공익에 뿌리내린 공공제도를 통한 집합적 행위를 신봉하기 때문이다.”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위기, 나아가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용주의를 넘어서 목표, 도전, 제한, 열망의 네 가지 전략적 차원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이를 함께 묶는 일관된 정치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오늘날 ‘새로운 시대의 중도진보 기획’을 규정한다. 여기서 근본적인 것은 사회민주주의의 목표에 대한 성찰이다. ‘목표’는 사회민주주의의 규범적 공약, 사회민주주의자가 믿는 통치의 가치(governing values)이다. “사회민주주의자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선거에서 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통치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의 중도진보 기획’은 사회민주주의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sup>18)</sup>.

첫째, 사회민주주의는 시장사회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대변한다. 열린 시장은 실험과 혁신을 장려한다. 그러나 누구도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 ‘시장사회’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한 것이고, ‘시장경제’는 시장을 적대시하는 구좌파에 대한 비판을 전제한다. 이는 좌우파의 교조를 버리고 사회정의와 함께 역동성과 창의성, 혁신을 옹호함으로써 유럽 차원에서 제3의 길을 승인한 〈블레어-슈뢰더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

18) Olaf Cramme, et al. *A Centre-Left Project for New Times*, Policy Network(2012,4,16), pp.7-14. Olaf Cramme & Patrick Diamond, "Is Europe's Left Ready to Govern?" *The Guardian* (2012,4,7).

---

둘째, 사회민주주의는 공공영역을 규정하고 방어한다. 사회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공익의 정치(the politics of the public interest)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시민권, 평등, 서비스의 공공영역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강화된 공공영역은 개인의 성공과 사회의 행복을 위해 중요하다. 그런데 공공영역을 국가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시장만이 아니라 국가 또한 단독으로 공익을 수호할 수 없다. 따라서 관료적 기득권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구좌파의 국유화와 신우파의 민영화를 넘어 서는 기든스의 ‘공공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셋째, 사회민주주의는 생활스타일과 윤리적 변동의 미학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좋은 삶을 이끄는 윤리적 차원을 갖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우리가 홀로 행동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이 윤리적 삶의 미학, 생활인의 상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사회민주주의는 공동의 시민권과 사회통합에 근거한다. 사회민주주의의 임무는 호혜적 권리와 책임에 근거한 공동의 시민권과 사회통합 정신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시민권은 누구나 능력과 필요에 따라 혜택을 받으면 그와 함께 사회의 공공재에 기여해야 한다는 윤리를 전제한다. 공공재를 남용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 전통의 이상인 책임과 연대라는 근본적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민주주의는 국제주의 운동을 자임한다. 이 또한 한 국가의 시민을 넘어 전세계 인류에 대해 책임 있는 세계시민으로 행동하라는 윤리적 기초를 가진다. 21세기에 이 국제주의적 공약은 윤리적 근거만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활력 있는 국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

필요하다. 유럽에서 사회민주정당은 유럽연합의 개혁과 글로벌 공공 영역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이 사회민주주의의 목표를 관통하는 정신은 사회민주주의가 ‘윤리적 가치’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는 경제 관리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정된 접근방식이 아니라 윤리적 가치의 지속적 틀에 입각한 일단의 변화하는 강령적 공약이다. ... 고정된 교조가 아니라 설득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일단의 규범적 이상을 인간의 궁핍과 고통을 없애려는 결단과 결합한다. 사회민주주의는 계급이 아니라 양심(conscience)을 혁신적 정치(radical politics)의 핵심으로 본다. 사회민주주의는 혁신적 정치 행동에 대한 공약을 뒷받침하는 진보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중도진보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권력을 얻고 책임 있는 집권당(a responsible party of government)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sup>19)</sup>.

새로운 시대의 중도진보 기획에 근거한 사회민주주의는 ‘윤리적 가치의 지속적 틀’에 입각해야 한다. ‘혁신적 정치의 핵심’으로 ‘계급’이 아니라 ‘양심’을 강조한다. 이는 좌우파의 계급에 근거한 교조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근거한 혁신 중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 중도는 이제 선거 승리의 전략을 넘어 윤리적 가치로 승격되었다. 혁신 중도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진보의 이야기’는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 ‘양심’에 근거한 사회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윤리적 가치에 기초한 사회민주주

---

19) Olaf Cramme & Patrick Diamond(2012), p.7. Lynn Stout, "Taking Conscience Seriously", Policy Network(2012.9.19).

---

의의 이데올로기 혁신은 다시 사회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는 고정된 교조가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 수단을 적응시키는 항구적 과정으로 착상되었다. 사회민주주의는 변화하는 조건에 따라 스스로를 혁신하는 능력을 가진 강력한 수정주의 경향인 잡종적 정치 이데올로기('hybrid' political ideology)이다<sup>20)</sup>.

사회민주주의는 '양심'이라는 보편적인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혁신하는 수정주의 외에 다른 아니다. 사회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정은 재분배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는 현실에서 성과로 검증되어야 할 수단에 불과하다. "일관된 핵심은 경제적 효율성과 더 큰 평등의 결합이다." 사회정의는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갈 수 있고, 평등과 자유는 선순환 될 수 있다. 사회정의와 경제적 효율성의 병행발전, 평등과 자유의 선순환이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 근본적 가정을 복원하기 위해 사회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잡종적 정치이데올로기'가 되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는 가일층 사회자유주의와 통합해 새로운 시대의 중도진보가 되어야 한다<sup>21)</sup>. 이는 노르딕

---

20) Olaf Cramme & Patrick Diamond(2012), pp.6-7. Patrick Diamond, "European Social Models and the Challenge of Social Cohesion", Queries(2011,2).

21) Colin Crouch, "Markets, Power and Politics: Is There a Liberalism beyond Social Democracy?", in Olaf Cramme(2011). 2010년 총선 참패 후 영국 노동당은 재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혁신 방향은 사회자유주의와의 가일층적 결합이다. "사회자유주의와 결합된 사회민주주의는 영국에서 진보정치의 분명한 지적, 윤리적 목적이고, 이는 평등과 자유의 종합이다. 또한 자유주의와 노동주의가 결합했을 때, 영국의 진보정치는 가장 강력했다. 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자유주의의 아이디어 연합이 되어야 한다. ... 노동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국가 전

---

국가들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사회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자유주의(the liberalism beyond social democracy)’를 요구한다. 여기서 자유주의는 사실상의 시장독과점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중앙 집권적 권위에 도전하는 중산층과 연관된 자유주의이다.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자연스런 파트너이다. ‘넘어서는’의 의미는 사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가 사회민주주의의 목적과 수단에 모두 필수불가결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오늘날 현대적 노동 계층의 대부분이 성공을 열망하는 중산층 또는 중산층이 되기를 열망하는 직장인이 된 현실을 반영한다.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이 새로운 접근방식은 미국 민주당 현대화의 제1가치인 ‘모두를 위한 기회(opportunity for all)’를 사회민주주의의 핵심 테마로 정초한다. 기회의 테마는 빈곤 또는 불평등의 테마보다 유권자와 더 공명한다. 희망의 포지티브가 분노의 네거티브를 이긴다. ‘모두를 위한 기회’는 첫째,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둘째,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셋째, 더 많은 사람이 중산층이 되는 기회의 사회(the opportunity society)를 만드는 것이다<sup>22)</sup>.

---

망을 보여주어야 하고 선거승리전략만이 아니라 국가통치전략을 가져야 한다. 이는 기술변동의 최첨단에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서비스에 기초한 새로운 영국 자본주의 모델, 책임과 서비스 정신이 핵심인 새로운 공공윤리, 민주적 협의와 논쟁을 통해 미래의 지출에 대해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원주의 시대에 새로운 정치는 ‘양심과 개혁’의 진보적 신조를 견지해야 한다.” Patrick Diamond & Michael Kenny, “The Next British Centre-Left” Policy Network(2012).

22) Isabel V. Sawhill, “How to Fulfill the Promise of Opportunity for All”, in Olaf Cramme(2011), Policy Network, “Revitalising Social Democracy: Amsterdam Process Discussion Note”(2010.6.30-7.1). <http://www.policy-network.net/uploads/media/17/6999.pdf>

---

### (3) 신중도와 새로운 진보연합

영국 노동당의 ‘정책재검토<sup>23)</sup>’를 이끌고 있는 번(Liam Byrne)은 제3의 길 이후 새로운 진보의 길을 새로운 진보연합(the new progressive coalition)을 위한 신중도(the new centre-ground)로 규정한다<sup>24)</sup>. “새로운 진보의 핵심은 정치적 중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정책 어젠다의 새로운 표현을 찾는 것이다.” 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보의 논쟁이 제3의 길에 대한 전면 부정과 전면 긍정 간의 그릇된 양자택일의 논리에 빠져있다고 진단한다. 제3의 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제3의 길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 대답은 충분하지 않다. 새로운 진보연합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3의 길의 무엇을 유지해야 하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수정주의 원칙을 다시 적용해야 한다. 이는 “전통적 가치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해법, 새로운 방법, 새로운 행동방식을 찾기 위해 정치적 마인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철학을 유지하면서

---

23) 2010년 총선 참패 후 노동당은 혁신을 위한 ‘정책재검토’에 착수했다. 노동당의 ‘정책재검토’는 150회 이상의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고 2만개 이상의 정책 아이디어를 받았다.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들었던 것은 영국정치에 신중도가 있다는 것이다. 신중도는 당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중도는 유권자가 말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 우리의 도전은 변화하고 전진하여 다시 중도를 우리의 홈그라운드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곳이다.” 번은 노동당의 정책재검토를 ‘신노동당 버전 2.0(New Labour 2.0)’으로 규정하면서 ‘신중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Helene Mulholland, "Liam Byrne: Labour must Seize the New Centre-Ground of Politics", *The Guardian*(2011.9.25)

24) ‘신중도’는 영국의 현실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신중도’는 지난 2년간 진보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반영했고, 중도진보정당의 재집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조직과 개인들의 기여했다. ‘신중도’는 영국 노동당 싱크탱크 ‘진보(Progress)’와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가 공동으로 발행했다. 도움을 준 조직으로 글로벌 진보, 정책네트워크, 암스테르담 프로세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등을 열거하고 있다. Liam Byrne, *The New Centre-Ground: How can Progressives Win a New Majority?* Progress, Centre for American Progress(2012.4), pp.3-4.

---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sup>25)</sup>.” 제3의 길의 영구 수정주의 정신에 입각해 새로운 진보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변은 유지해야 할 제3의 길의 핵심 통찰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선거승패는 중도에서 결정된다. 이는 우리의 전통적 지지자들과 부동층 유권자들을 통합하는 열망, 책임, 공동체의 기본가치에 근거한 연합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중도, 즉 무당파 유권자들을 이해하는 것이 노동당이 다시 승리하는데 근본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sup>26)</sup>.

오늘날의 중도인 신중도, 즉 무당파 유권자들을 이해하는 것이 새로운 진보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첩경이다. 여기서 글로벌 진보의 경험적 연구 성과를 인용하고 있다. 글로벌 진보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헝가리, 오스트레일리아의 인구학적 변동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면서 새로운 진보연합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과거 사회민주당의 고정지지층이었던 전통적 노동계층이 급감하는 한편, 부동층이지만 사회민주당과 친화적일 수 있는 신중도 집단이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는 고학력 전문직 중산층, 이민자와 소수자, 여성, 싱글과 무종교자, 청년세대를 새로운 진보연합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규정한다. 세계화, 지식기반 경제, 탈물질주의적 가치와 함께 전반적인 인구학적 경향은 사회민주당에게 유리해지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가 이론적, 실천적으로 파탄했음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

25) Liam Byrne(2012), pp.6-8.

26) Liam Byrne(2012), p.9.

---

사회민주당들은 계속 패배하고 있다. ‘유럽의 패러독스(the European paradox)’라 불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sup>27)</sup>.

글로벌 진보는 유럽의 패러독스의 원인을 분석한다. 핵심원인은 사회민주주의가 신중도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제3의 길을 모방하고 있는 보수정당의 중도화에 대응하여 분명하게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차별화’는 적군과 우군의 전선을 선명히 하는 ‘낡은 전선의 정치(the old politics of dividing lines)’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혁신을 거부하는 이 속편한 전략은 선거가 단순히 정부의 실적에 대한 국민투표가 아니라 여당과 야당 간의 선택이고, 이는 현재에 대한 설명들과 미래에 대한 비전들 간의 경쟁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물론 선거결과는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 여당의 패배라는 격언처럼 심판선거 공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싫어하는 여당’과 ‘신뢰할 수 없는 야당’ 간의 선택에서 유권자는 어쩔 수 없이 ‘싫어하는 여당’을 선택했다는 점 또한 변함없는 사실이다<sup>28)</sup>. 신뢰가 선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신뢰를 얻기 위한 혁신은 필수적이다.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고, 특히 사회민주당이 통치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화는 정치적 말장난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신뢰가 지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보수정당의 중도화에 대해 사회민주당은 아웃파이터가 아니라 인파이터가 되어 중도 싸움

---

27) Matt Browne, John Halpin & Ruy Teixeira, "From Welfare State to Opportunity State: How Progressives should Respond to Demographic Chang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2011.4), pp.1-14.

28) Robert Philpot(ed), *The Purple Book: A Progressive Future for Labour*, (London: Biteback Publishing Ltd, 2011), pp.8-9.



---

에서 승리, 부동산층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영국 노동당의 정책재검토는 글로벌 진보의 경험적 연구를 종합해 신중도의 가치를 이끌어낸다. “신중도는 어떤 모습일까? 중도는 이전보다 더 커지고 있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더욱더 부동산층이 되고 있다.” 부동산 유권자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성향은 진보적 중도이다. “인구학적 변동을 분석하면 부동산층은 제3의 길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 즉 성공에 대한 열망, 가족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와의 동일성,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본유적 감정을 강력하게 갖고 있다.” 이 기본 가치로부터 신중도의 기본적 통찰을 얻는다<sup>29)</sup>.

첫째,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민주주의가 가야할 유일한 길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성장이다. 보수정당에 대한 공격은 일자리에 집중되어야 한다. 보수정당을 ‘실업의 정당’으로 낙인찍어야 한다.

둘째, 보통사람의 평범한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한 분노가 크다. 사회민주주의는 성공에 대한 열망을 뒷받침하는 모두를 위한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보수정당은 ‘기득권의 정당’이다.

셋째, 정부의 힘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정부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정부의 해체가 아닌 ‘다른 종류의 정부(a different kind of government)<sup>30)</sup>’를 공약해야 한다.

---

29) Liam Byrne(2012), pp.37-38. Policy Network, "The Quest for a New Governing Purpose", in Olaf Cramme(2011), "New YouGov Polling on Trust in Trust in Centre-Left Parties and Politics", <http://www.policy-network.net/news/3893/New-YouGov-polling-on-trust-in-centre-left-politics>

30) ‘새로운 개입주의 국가(new interventionist state)’를 예로 들 수 있다. 새로운 국가개입의 원리는 첫째, 개입은 적중해야(targeted) 한다. 즉, 시스템과 관련된 중요성을 가진 경우와 영역에서만 개입한다. 둘째, 개입은 단계적으로(phase-specific) 해야 한다. 즉, 관리할 수 있게 위기의 전개에 민감해야 한다. 셋째, 개입은 조건적이어야(conditional) 한다. 즉, 분명한 게임의 법칙과 게임

---

넷째, 이민과 정체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태도는 유동적이고 복잡하다. 특히 젊을수록 인종적으로 다양한 사회에 사는 것에 대해 개방적이다. 압도적 다수는 정치적 폭력과 극단주의를 거부한다.

이 신중도의 통찰로부터 새로운 진보연합을 구성하기 위한 신중도의 원칙을 제시한다. 이는 “제3의 길 이후 진보주의가 중도로 복귀하는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다.”

우리의 출발점은 담대하고 낙관적이다. 우파에 대한 대안이 있다. 국가 예산, 당신의 생활수준, 당신의 자녀를 위해 더 좋은 것이 있다.

우리의 태도는 단호하다. 돈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만 권력에 대해서는 혁신적이다.

우리의 철학은 분명하다. 기회의 평등과 결합된 책임의 평등이다. 책임은 정부와 함께 기업에게도 요구된다. 사회의 최하층과 최상층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요구된다.

우리는 제3의 길의 최선의 요소를 유지하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응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회복하고 생활수준의 압박에 대응하며 정체성과 공동체에 대한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노장청의 새로운 연합, 성공을 열망하는 중산층과 노동계층의 새로운 연합, 여성, 시민권 취득자를 포함하는 연합을 형성해야 한다<sup>31)</sup>.

---

철회 옵션을 확립해야 한다. 넷째, 개입은 지능형이어야(intelligent) 한다. 즉, 거버넌스의 새로운 형식, 특히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혼성적 거버넌스 형식을 개발해야 한다. 새로운 개입주의 국가는 경제성장, 시장규제, 초국적 규제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의 능력을 대체할 수 없고, 지배적 시장 행위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정부의 적합한 역할은 시장질서가 교란되었을 때,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최종적 시장 창설자(market-maker of last resort)’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개입주의 국가는 공공재의 생산을 위해 민간의 기업가정신과 공공의 책임성을 결합한다. Gunnar Folke Schuppert, "The New Interventionist State" in Micheal McTernan, *Responses to the Global Crisis: Charting a Progressive Path*, Policy Network(2009).

31) Liam Byrne(2012), p.37.

---

정책재검토는 신중도의 원칙을 신념으로 말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 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득표용의 선거공학을 직감적으로 간파하기 때문이다. 또한 낙관주의에 호소함으로써만 진보정당은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수정당은 유권자가 회의적이고 절망하기를 원한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유권자들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정치를 전면 부정한다. “우리의 임무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희망을 주고, 의심의 시대에 낙관주의를 펼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중도를 장악하여 새로운 진보연합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신중도의 원칙으로부터 ‘성장과 고용의 국가혁신 어젠다’를 도출한다. 이는 “전후 시대의 진보적 고성장 복지국가의 창출을 뒷받침했던 사회연대를 혁신하는 것이다.” 국가혁신 어젠다에서 무엇보다 일자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유럽의 당면 현안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도 일자리와 성장을 중시해야 한다. 일할 권리와 일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일과 납세에 대한 책임을 복원하고 연계하는 새로운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신중도의 성공 열망을 지원하는 공공서비스가 필요하다<sup>32)</sup>.

---

32) Liam Byrne(2012), pp.38-40.

---

### 3. 제3의 길 이후 정책의 재혁신

#### (1) 경제정책의 혁신 방향

2012년 유럽의회의 사회주의자와 민주주의자의 진보연합(Group of the 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 Democrats in the European Parliament)은 <유럽의 사회주의적 대안을 위한 선언 The Manifesto for a European Socialist Alternative>을 발표했다. <선언>은 사회민주당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신뢰를 얻기 위해 진보는 현재의 위기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 미래의 행동에 대한 일단의 단순하고 공유된 원칙, 위기의 핵심에 대응하는 공약이 필요하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보수정당이 유럽연합을 ‘유럽긴축연합(European Austerity Union)’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극단적 긴축으로 인해 유럽의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복지국가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선언>은 일관된 경제정책의 원칙으로 공유된 책임, 성장, 평등을 제시하면서 긴급 현안인 국가부채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낭비적인 공공지출과 부채의 누적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공공지출이 효율적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엄격한 예산의 운용은 공공지출의 제한과 함께 지불능력에 근거한 공정한 과세와의 균형을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성장 없는 긴축은 유럽에 파국적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성장 없는 긴축 때문에 유럽은 쇠퇴와 불황의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될 것이다. 성장을 위해서는 촉진적 역할을

---

하는 유럽의 예산과 금융수단과 함께 일국적, 유럽적 행동이 필요하다.” 또한 “평등은 지금 유럽의 회복에 본질적이다.” 과세가 불공정하고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집합적 노력은 붕괴될 것이다. 이 원칙에 근거해서 ‘미래를 위한 공동 공약’을 기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유럽연합 조약의 경제·사회적 목표인 성장, 완전고용,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삼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sup>33)</sup>.

유럽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을 둘러싸고 긴축이나 성장이냐는 그릇된 양자택일의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선택은 성장도 아니고 긴축도 아니다. 재정 상황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면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리려면 성장과 긴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옳다<sup>34)</sup>.” 성장과 긴축 병행 추진론이다. 이는 일자리와 성장을 증진하는 적극적인 단기정책과 국가부채를 줄이는 중기적인 목표를 결합하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합리적인 긴축 정책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금과 공공지출에 대해 엄격해야 한다. 재정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얻지 않고서 ‘긴축의 시대’에 사회민주당은 집권할 수 없다. 그러나 보수정당의 극단적인 긴축 정책은 성장의 토대를 붕괴시켜 일자리를 파괴하며 이는 다시 세수를 급감시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현재 올바른 현실적인 재정정책, 재정에 대한 현실주의(fiscal realism)는

---

33) Group of the 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 Democrats in the European Parliament, "The Manifesto for a European Socialist Alternative" (2012), <http://europeansocialistalternative.blogspot.kr/2012/02/le-texte.html>

34) Anthony Painter, "Beyond False Alternative", Progress(2012.5.30).

---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것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율을 높이는 것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고용율을 높이는 성장정책은 국가부채의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다. “성장과 미래의 경쟁력을 위한 새로운 지속가능한 모델을 기안하는 것은 유럽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도전이다.” 사회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새로운 기술부문,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새로운 디지털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 또한 “21세기 산업정책은 정부투자만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구조와 인센티브, 국가 인프라, 산학협력, 노동력의 숙련, 기업의 윤리를 포함한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을 개혁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성장의 동력이 되는 기업과 정부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는 적극적인 산업·혁신정책(an active industrial and innovation policy plan)이면서 동시에 기업과의 새로운 협약(the new bargain with business)이다. 사회민주주의는 “현상유지가 아니라 기업가의 편, 중소기업가의 편, 도전자의 편이 되어야 한다<sup>35)</sup>.”

경제정책의 목적은 “활기차고 사회적으로 포용적이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식기반경제”이다. 혁신 방향은 구좌파의 케인즈주의와 신우파의 신고전 경제학을 넘어서는 ‘혁신경제론(innovation economics)’을

---

35) Liam Byrne, "Keep Centre", Progress(2012,1,30). Liam Byrne(2012), pp.40-45. Olaf Cramme, et al.(2012,4,16), pp.15-18. Stuart Bell, "Redefining Social Democracy", Policy Network(2012,3,12).

---

정립하는 것이다<sup>36)</sup>. ‘혁신경제론’은 지식, 기술, 기업가정신, 혁신을 성장 정책의 우연적인 외생변수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정책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다. 혁신경제론은 다음과 같은 원리에 기초한다. 첫째, 생산성 향상과 혁신 창출을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로 한다.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양자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현명한 파트너십을 추구한다. 혁신경제론은 디지털 정보기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고, 보호주의가 아닌 세계화의 윈윈 시스템을 창안할 것을 요구한다.

## (2) 복지정책의 혁신 방향

복지정책의 혁신 방향은 ‘복지국가’를 ‘기회국가(opportunity state)’로 재구성하는 것이다<sup>37)</sup>. 물론 복지와 기회는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시장의 열패자를 보호할 것을 강조하는 ‘복지국가’와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고 열망을 실현할 수단을 제공할 것을 중시하는 ‘기회국가’는 병행되어야 한다. “기회국가의 비전은 전통적인 안전 조치와 함께 더 많은 사회이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새로운 노력을 결합한다.” 복지국가를 뒷받침했던 산업화시대의 연대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를 중시하는 새로운 연대가 요구된다. 열패자에 대한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복지국가 모델은 상향적 사회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부적합하다. 따라서 빈곤층을 특별히 보호하면서 서민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부자로, 부자를 세계적 갑부로

---

36) Robert Atkinson, "Innovating out of the Crisis" in Micheal McTernan(2009).

37) Matt Browne, John Halpin & Ruy Teixeira(2011.4), pp.15-18.

---

만드는 기회의 새로운 연대가 필요하다. “기회국가의 새로운 연대는 개인의 잠재력 실현을 도와주는 도덕적 기반이고, 개인의 성공에 대한 장벽을 해체하는 집단적 노력이다. 기회국가는 호혜적 책임을 강조하고 공동체의 안정과 동시에 개인의 성공을 존중함으로써 공정경쟁과 재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기회국가는 ‘복지국가’를 ‘복지사회’로 전환하는 진보적 혼합 복지(progressive welfare mix)를 추구한다<sup>38)</sup>. ‘국가 대 시장’의 관념은 그릇된 이분법이다. “국가인가 시장인가? 문제는 혼합이다. 바보야! (It's the mix, stupid!)” 기회국가의 규범적 목적은 개인의 자율성, 책임, 능력개발, 선택의 확장과 풍부화이다. 기회국가의 제도화는 개인의 전체생애에서 기회를 향상한다는 궁극적 관점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균등한 혼합을 찾고, 자원과 기회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적합한 제도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진보적 혼합 복지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를 중시하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와 평생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학습연계복지(learnfare)’를 통해 자활능력을 강화하는 ‘활성화(activation)’이다. 성공적인 반(反)빈곤전략은 안전망(safety net)과 함께 도약대(springboard)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어린이에 초점을 맞춘 사회 정책과 인적자본과 기술습득에 투자한다. 20세기 복지국가의 목표가 노년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21세기 기회국가의 목표는 어린이와 청년에게 공정한 생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

38) Maurizio Ferrera, "The Progressive Welfare Mix", Anton Hemerijck, "In Search of a New Welfare State" in Micheal McTernan(2009).



---

셋째, 양성평등과 차별금지에 기초해 여성이 전면적으로 경제에 참여하는 ‘여성경제(womenomics)’를 최우선 과제로 한다. 이를 위해 부모 모두가 일과 가족의 책임을 공유하는 양성평등가족을 장려하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보험에 대한 생애주기 접근방식(life-cycle approach)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혼합적 급여를 통해 개인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 또한 노년은 유연한 은퇴와 적극적 노령화(active ageing) 정책을 통해 완전히 재구성되어야 한다.

기회국가에서 기회의 핵심은 일자리다. 긴축의 시대에 복지는 일 자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sup>39)</sup>. “차세대 복지국가개혁은 새로운 일할 권리와 함께 새로운 일할 책임을 결합하는 것이다. 새로운 복지국가는 남녀 간의 부당한 임금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도록 근로가족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동에 대한 보상을 혁신할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고용율을 높이는 복지가 되어야 한다.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투자전략(social investment strategy)’이 필요하다<sup>40)</sup>. 특히 경제위기로 인한 긴축재정으로 사회투자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재정정책이 사회투자의 장기적 목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투자전략은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가족, 사회가 경력패턴과 노동조건의 변화, 새로운 위험, 노령화 등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적극적 사회정책이다. 또한 사회투자는

---

39) Liam Byrne(2012), pp.45-48.

40) Frank Vandenbrouke, "Don't Drop the Social Investment Strategy but Give it More Bite", in Olaf Cramme(2011).

---

사회적 책임과 함께 개인적 선택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요구한다. 권리와 책임은 동반해야 한다. 양질의 보육, 교육개혁,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은 기회균등과 상향이동이라는 기회국가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핵심적이다.

고용을 중시하는 사회투자는 유연성과 안전성의 새로운 결합을 찾는 것이다. 유럽에서 이 새로운 결합은 ‘유연안전성 2.0 (flexicurity 2.0)’이다<sup>41)</sup>. ‘유연안전성 2.0’의 목표는 가능한 많은 사람을 노동 시장에 포용하여 복지수급자의 수를 줄이고 세수를 늘려 이를 통해 재정적자 해결에 기여하며 동시에 양질의 교육과 사회·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여 안전과 상향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연안전성 모델은 실업급여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고용보호의 완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진한다. 그리고 실업자에게 평생 교육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는 한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유연안전성을 확보한다. 유연안전성 모델을 사회투자와 결합함으로써 활성화(activation)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유럽 사회모델(European social model)’을 공고화한다.

---

41) Jon Kvist, "Flexicurity 2.0 is the Model for the 21st Century", in Olaf Cramme(2011).

---

## 4. 담대한 중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사회민주정당들의 계속된 패배는 제3의 길을 넘어서는 새로운 수정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사회민주정당은 제3의 길을 모방한 보수정당의 중도화에 대항해 중도를 고수하면서 이데올로기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데올로기 혁신을 위한 ‘제3의 길의 두 번째 물결’은 사회정의와 경제적 효율성의 병행발전, 평등과 자유의 선순환을 사회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정으로 재발견하는 ‘새로운 시대의 중도진보 기획’이고, ‘새로운 진보연합’을 위한 ‘신중도’이다. 제3의 길 이후 ‘새로운 진보’의 길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중도를 다시 찾는 ‘신중도’인 것이다.

1990년대 클린턴의 제3의 길이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에 향도 역할을 했다면, 오늘날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은 유럽 사회민주주의가 새로운 진보의 길을 찾는 북극성이 되고 있다. 오바마의 승리는 중도를 장악하는 것이 새로운 진보이자 집권공식이라는 것을 다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은 ‘담대한 중도’이다.

(W. 부시 집권이후) 민주당은 반사이익정당(the party of reaction)이 되었다... 그러나 더 첨예한 당파적, 이데올로기적 전략을 추구하려는 민주당의 어떠한 시도도 현재의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우리가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우리의 대의를 과장할 때마다 패배한다고 생각한다. 이데올로기적 순수성, 경직된 정설, 정치적 논쟁의 뻔한 예측성 때문에 한 국가로써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할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양자택일의 사고에 빠지는 것이다. 국민을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교조적 사고와 노골적인 당쟁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광범한 다수, 즉 선의를 가진 민주당원, 공화당원, 무당층이 국가혁신 프로젝트에 다시 함께 하는 것이다... 국민은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도그마와 상식, 책임과 무책임, 지속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 간의 차이는 알고 있다<sup>42)</sup>.

미국 민주당은 두 번의 대선패배 이후 중도의 재장악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자기 혁신을 추진했다. 오바마는 “매우 절대주의적인 우파가 있고, 동일하게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좌파가 있다. 그리고 중도에 80%의 국민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변화는 국민이 좌우의 첨예한 분열을 깨뜨리려고 한다”는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공화당 만큼 민주당도 낡은 사고방식과 과거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의 모델은 클린턴의 제3의 길이다. “보수와 진보는 정치를 정책비전의 경쟁이 아니라 선악의 싸움으로 보았다. 이 이데올로기적 교착상태를 넘어선 것이 클린턴의 특유한 기여였다. 클린턴은 보수와 진보의 라벨이 공화당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았다. 클린턴의 제3의 길은 국민 다수의 실용적, 비이데올로기적 태도에 적중했다.” “신민주당의 철학은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교착상태를 넘어 새롭게 생각하려는 것이다.” 오바마는 ‘신민주당원’, ‘성장친화적 민주당원(pro-growth Democrat)’을 자임하면서 “좌파도 우파도 아닌 새롭고 다른 길로 국가를 지도할 것”을 공약했다. 오바마가 ‘혁신적

---

42) Barack Obama, *The Audacity of Hope: Thoughts on Reclaiming the American Dream*, (New York: Crown Publishers, 2006), pp.39-40.

---

온건론자(radical moderate)’ 또는 ‘비전있는 중도주의자(visionary centrist)’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의 불신만 증폭해 왔던 증오의 정치 속에서 고정관념을 벗어던진 문제해결의 정치,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천함으로써 ‘혁신적’이고 ‘비전있는’ 정치인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sup>43)</sup>.

동일하게 두 번의 대선패배를 당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처절한 자기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익숙해서 편안한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담대한 중도’를 찾아야 한다. 진영논리에 안주하는 ‘시끄러운 소수’의 존재감의 정치가 아니라 문제해결의 정치를 열망하는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정서와 이해를 대변하는 공감의 정치를 일관되게 실천해야 한다. 여론조사로 말하는 조용한 다수의 상식에 근거한, 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신뢰, 통합, 희망의 정치가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방향이 되어야 한다.

첫째, ‘문제는 신뢰야, 바보야!(It's trust, stupid!)’

정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화는 정치적 말장난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신뢰가 지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차별성을 명분으로 극단화되는 아웃파이터가 아니라 인파이터가 되어 중도 싸움에서 승리, 수권정당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의 대한

---

43) Lisa Logak(ed), *Barack Obama in his own Words*, (New York: Carroll & Graf Publisher, 2007). Christopher Caldwell, "Obama: Radical Moderate", *Financial Times*(2008.11.7). Bruce Reed, "Yes, He is: Obama Calls Himself a New Democrat and Shows What It Means", *State* (2009.3.11). 이런 맥락에서 구좌파가 클린턴을 ‘공화당 2중대(me-too Republican)’, ‘부자 민주당(Democrat for the Leisure Class)’으로 비판했던 것처럼 오바마를 ‘부시 2중대(Bush 2.0)’, ‘파괴적 중도(Destructive Center)’로 비판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Edward Luce, "Left Decries Move towards Centre Ground", *Financial Times*(2009.5.20).

---

민국 헌법정신이 60년 민주당의 정통성을 계승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이다. 대한민국 정통정당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책임정당이 되어야 한다.

둘째, ‘박근혜는 생각하지마.(Don't think of Park)’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가 무엇을 하든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는 ‘국민제일의 정치’를 일관되게 실천해야 한다. 이는 또한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민생제일의 초당적 정치’를 전제한다. 적대적 공존의 양극화 사회 속에서 선명성은 누구나 예측하는 뻔한 관성을 떨쳐버렸을 때, 더욱 빛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끄러운 소수의 그들만의 정치가 아니라 보통사람의 꿈을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공감의 정치, 당심과 민심이 하나되는 국민정당이 되어야 한다.

셋째, ‘희망이 분노를 이긴다.(Hope beats anger)’

수권정당은 문제를 지적하는 분석가, 분노하는 항의운동이 아니라 해법을 제시하는 실천가, 희망을 실천하는 대안정당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양극화의 진단이 아니라 계층상승의 해법을 제시하는 희망정당이 되어야 한다. 서민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부자로, 부자를 세계적 갑부로 상승시키는 ‘전반적 상향이동전략(general upward-mobility strategy)’을 기안해야 한다.